

중국어 주제의 기능에 관한 고찰*

李恩洙**

◁ 목 차 ▷

- I. 서론
 - II. 중국어 주제와 대하여성
 - 1. 중국어의 주제
 - 2. 중국어의 주제와 대하여성
 - III. 중국어 주제의 기능 - '서술의 영역 제한'과 '비초점화'
 - 1. '서술의 영역 제한'
 - 2. '비초점화'
 - IV. 결론
-

I. 서론

문장의 주제에 관해 처음 언급한 것은 Mathesius(1928)라고 한다. 그는 문장을 '문장이 언급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과 '그것에 대해 말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각각 주제(theme)와 언명(enunciation)이라 했다.¹⁾ Mathesius는 또 주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알려진 것, 적어도 명백한 것, 그로부터 화자가 그의 담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주제는 항상 언급에 선행한다고 보았으며, 주제는 반드시 이미 알려진 것,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재문이나 존재 도입문은 주제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²⁾ Mathesius가 언급한 이러한 주제의 특성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본 논문에 대해 유의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언명(enunciation)은 후에 평언(rheme)으로 불리게 된다.(Daneš, 1994)

2) 임흥빈(2007)에서 재인용.

들은 후대의 연구에서도 모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만 후대의 연구에서는 ‘theme’과 ‘rheme’을 대신하여 ‘topic’과 ‘comment’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³⁾

이후 Li and Thompson(1976)은 주제에 관한 연구를 유형론으로까지 발전시켰다. 그들은 세계 언어를 주제 부각형 언어, 주어 부각형 언어, 주어와 주제가 모두 부각되는 언어, 주어와 주제가 모두 부각되지 않는 언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주제 부각형 언어에서 주제가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각형 언어에서 주제의 특성(Li and Thompson, 1976)

- 가. 주제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 나. 주제는 문장 내의 어떤 술어와도 선택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 다. 주제의 선택은 동사와는 독립적이다.
- 라. 주제는 주요 술어가 적용되는 영역을 한정한다.
- 마. 주제는 동사와 일치할 보이는 일이 드물다.
- 바. 주제는 문두에 나타난다.
- 사. 주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다.

(1)에서 제시된 주제의 특성들은 주제 부각형 언어, 특히 중국어의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대체로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라’항은 주제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Li and Thompson(1976)이 Chafe(1976)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Chafe에 따르면, 주제가 하는 것은 “주요 서술의 적용가능성을 어떤 한정된 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Li and Thompson(1976, 1981)은 Chafe(1976)가 말한 이 주제의 기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제의 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즉 주제는 “문장이 언급하는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Chafe(1976)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주제 부각 언어에서 주제는 ‘문장이 언급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장의 서술이 유지되는 틀’”이라고 보았다. 즉 Li and Thompson(1976)은 주제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Chafe(1976)는 이들을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주제 부각 언어에서 주제의 기능을 전자가 아닌 후자로만 본 것이다.

3) ‘topic’과 ‘comment’의 사용은 Hockett(1958)에서 시작되었다.(Hickey(1990) 참조)

이후 중국어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준 것은 Li and Thompson(1976, 1981)의 견해이며, 徐劉(2007)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위의 두 가지 기능은 양립가능하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주제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어 주제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중국어의 주제 구문이 기존에 논의되던 ‘대하여성’으로 잘 설명될 수 없음을 보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제는 ‘문장의 서술이 유지되는 틀’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틀은 화자에 의해 ‘비초점화’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II. 중국어 주제와 대하여성

1. 중국어의 주제

중국어 주제의 기능을 논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먼저 중국어 주제의 여러 양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어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왔다. 아래 예에서 문장은 ‘주제+평언’(topic+comment)을 구성하므로, 평언을 중심으로 볼 때 주제는 절의 외부(또는 IP의 외부)에 위치한다.⁴⁾

- (2) 這本書, 他讀過。
이 책은 그가 읽어봤다.
- (3) 小張, 我不喜歡他。
小張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 (4) 水果, 我最喜歡蘋果。
과일은 내가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4) 주제 구문의 통사적인 구조는 徐劉(2007)를 참조할 수 있다. 石(1999)는 생성문법의 전통에서 黃正德(1982) 이래로 여러 학자들이 주제 구문의 통사적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왔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대체로 주제가 S'(또는 CP)의 왼쪽에 부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제가 (주어를 포함하는) IP(또는 S)의 외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은 제가의 공통된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Paul(2002)과 徐劉(2007) 등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주제는 절의 내부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我烈性酒從來不喝。
난 독한 술은 여지껏 마셔본 적이 없다.
- (6) 你中藥以前用過嗎?
너 한약을 전에 써본 적 있니?
- (7) 你崑曲會不會?
너 곤곡 할 줄 아니?
- (8) 我電影不看了。
나는 영화를 보지 않기로 했다.

Paul(2002)은 이상의 예문에서 목적어의 전치로 볼 수 있는 명사구들이 부사나 조동사, 부정사 앞에 위치하므로, 이들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2)~(4)처럼 기준에 일반적으로 주제로 논의되던 절(IP) 외부에 위치하는 것들을 '외부 주제'(external topic), (5)~(8)과 같이 절 내부(주어 뒤)에 위치하는 주제를 '내부 주제'(internal topic)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중국어의 주제에는 '외부 주제' 외에도 '내부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⁵⁾

'내부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구 뿐만이 아니다. 徐劉(2007)에 따르면 술어 중 일부를 복사한 성분도 내부 주제가 될 수 있으며⁶⁾, 이러한 성분은 명사구는 물론 형용사구, 동사구 등도 가능하다.

- (9) 他人不像人, 鬼不像鬼。
그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다.
- (10) 他主任倒也是主任, 但是這一攤子的工作不歸他管。
그는 주임은 주임이지만, 이 산적한 일들은 그의 소관이 아니다.
- (11) 他兒子聰明倒挺聰明, 就是寫作業太粗心。

5) 徐劉(2007)는 '主話題', '次話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외부 주제', '내부 주제'가 구조적인 차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6) 徐劉(2007)는 이를 '拷貝式話題'(복사식 주제)라 부른다. 이러한 복사식 주제는 외부 주제가 되기도 한다.

그의 아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다만 숙제하는 게 너무 건성이다.

(12) 小張打籃球打得非常好。

장군은 농구를 아주 잘 한다.

물론 Li & Thompson(1981)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주제 역시 명사구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3) 住, 臺北最方便, 吃, 還是香港好。

사는 건 대북이 가장 편리하고, 먹는 건 역시 홍콩이 좋다.

(14) 到美國留學, 政府早規定了辦法。

미국에 유학가는 것은 정부가 진작 방법을 규정해 두었다.

(15) 張三明天去美國, 我覺得很奇怪。

장삼이 내일 미국에 가는 건 내 생각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중국어에서 주제가 되는 성분은 명사구 외에 다양한 성분이 올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외부 주제’와 ‘내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주제의 형식적인 표지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제의 위치와 주제 뒤의 휴지 외로도 주제 표지로서 ‘啊’, ‘呢’, ‘吧’ 등의 어기사를 들곤 한다. 그런데 ‘反正啊’, ‘比如啊’, ‘說到底啊’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어기사는 주제가 아닌 성분에도 부가될 수 있으므로, 徐劉(2007)가 주장했듯이 이들을 주제 전용 표지로는 볼 수 없다.

2. 중국어의 주제와 ‘대하여성’

우리는 앞의 절에서 중국어 주제의 여러 양상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중국어의 주제가 ‘대하여성’(aboutness)이란 기능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주제+평언’(topic+comment)으로 이루어진 주제 구문에서 주제는 일반적으로 ‘그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으로 알려져 왔으며, 따라서 주제와 평언의 관계는 ‘대하여성’(aboutness)으로 여겨져 왔다. 즉 주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에 관해 진술하는 진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徐劉(2007)의 예는 주제의 기능을 ‘대하여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

을 갖게 한다.

- (16) 一個警察抓住了一個小偷。
어느 경찰이 도둑 한 명을 붙잡았다.
(17) 一個小夥子爬上了山頂。
한 젊은이가 산 정상에 올랐다.

(16)에서 ‘도둑 한 명을 붙잡았다’는 것과 (17)에서 ‘산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각각 무엇에 대한 진술인가. (16)에서 진술의 대상은 물론 ‘어느 경찰’이고, (17)에서 진술의 대상은 ‘한 젊은이’이다. 따라서 ‘대하여성’의 정의(‘what the sentence is about’)만을 고려한다면 (16), (17)의 주어는 각각 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6)과 (17)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담화에 새로운 지시 대상으로 소개되고 여겨지므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진술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대하여성’만으로는 주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 주어를 주체 관련 논의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주체의 논의에서 (16), (17) 등을 배제하려면, ‘대하여성’ 외에도 ‘한정성’이나 ‘총칭성’ 등을 주체의 정의에 다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6), (17)에서 ‘一’를 ‘這/那’로 바꾸면 주체 구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성’, ‘총칭성’ 등은 명사성 범주에 국한된 개념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사구 외에 동사(구), 형용사(구), 절 등도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하여성’에 ‘한정성’, ‘총칭성’을 추가한다 해도 중국어의 주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Reinhart(1982)의 다음 예 역시 주체가 ‘대하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18) A: What other examples are there of famous contemporary figures who are bald?(현재 대머리인 유명 인사에는 또 어떤 예가 있나요?)
B: The King of France is bald.(프랑스 국왕이 대머리입니다.)

대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18B)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 문장은 ‘The King of France’를 주체로 하는 주체 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8B)

가 (18A)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18B)에서 'The King of France'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문장의 초점(focus)이기 때문이다. (18B)에서 'The King of France'가 주제가 아니라 초점이라면 이 문장의 주제는 무엇일까. Reinhart(1982)는 '대하여성'만을 기준으로 할 때, (18B)의 문장 주제, 즉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은 'The King of France'라기보다는 'is bald'라고 본다. A와 B의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대머리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 文旭(2007)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19B)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小李'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19B)의 주제는 '小李'이다. 반면에 (20B)에서는 누가 독서 중인지를 A가 모르는 상황에서, 독서 중인 것은 '小李'라고 B가 A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小李'는 역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주제가 아니라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20B)에서 '小李'가 초점이라면,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진술하는 것은 누군가 '독서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B)는 (19B)와 달리 '小李'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독서 중인'('在看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

- | | |
|----------------|-----------------|
| (19) A: 小李在哪儿? | B: 小李在教室。 |
| A: 이군은 어디 있니? | B: 이군은 교실에 있어. |
| (20) A: 誰在看書? | B: 小李在看書。 |
| A: 누가 책 보고 있니? | B: 이군이 책 보고 있어. |

물론 (18B), (20B)와 같은 문장을 주제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하려면 '대하여성' 외로 '문두성' 등을 주제의 정의에 다시 추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6), (17)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문두성'과 '대하여성'만으로는 역시 주제가 아닌 주어론 논의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다시 '한정성'을 추가해야 하는데, '한정성'은 동사(구), 형용사(구), 절 등이 주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대하여성', '문두성', '한정성' 외로 다시 새로운 설명을 추가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앞 절에서 보았던, 술어의 일부를 복사하여 주제로 삼는 '복사식' 주제 역시 '대하여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 (21) 漂亮是漂亮, 不過太貴了。
예쁘기는 예쁜데, 다만 너무 비싸다.
- (22) 他人不像人, 鬼不像鬼。
그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다.

(21)에서는 문두의 ‘漂亮’이, (22)에서는 주어 뒤에 오는 ‘人’과 ‘鬼’가 각각 ‘복사식 주제’로 쓰이고 있다. 만약 주제의 기능을 ‘대하여성’으로 본다면, (21)에서 ‘예쁘다’(是漂亮)는 것이 ‘예쁘다’(漂亮)에 대한 서술이라고 해야 하고, (22)에서 ‘사람 같지 않다’(不像人)는 것이 ‘사람(人)에 대한 서술이며, ‘귀신 같지 않다’(不像鬼)는 것이 ‘귀신(鬼)에 대한 서술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는 분명 위 문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⁷⁾

또한 (21), (22)는 ‘대하여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제의 특징으로 논의되던 ‘한정성’, ‘총칭성’ 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21)에서 복사식 주제는 형용사이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22)의 복사식 주제는 명사(‘人’, ‘鬼’)이지만 ‘한정성’이나 ‘총칭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하여성’을 중심으로 ‘한정성’, ‘총칭성’ 등을 추가한다 해도 중국어의 ‘복사식 주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이 주제(topic)가 되고, 그 뒤에 평언(comment) 절이 이어질 경우, 이러한 주제 구문이 ‘대하여성’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자.

- (23) 明天, 你應該穿西服、繫領帶。
내일은 네가 반드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
- (24) 禮堂裡, 你不可以抽煙。
강당 안에서 너는 담배를 피워서 안 된다.
- (25) 明天下午, 我三點鐘在辦公室等你。
내일 오후 내가 3시에 사무실에서 너를 기다릴게.

7) (21)의 올바른 해석은 ‘예쁘다는 면으로 논의를 한정시킨다면 분명 예쁘지만,’이고, (22)의 올바른 해석은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람 같지 않고, 귀신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귀신 같지 않다’이다. 계속해서 논의하겠지만, 중국어 주제의 기능을 ‘서술의 영역 제한’으로 본다면, ‘복사식 주제’ 역시 다른 주제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주제 구문으로 논의되는 ‘這本書, 他讀過’, ‘小張, 我不喜歡他’ 등과 같은 예문에서, 평언 절의 진술 대상은 명백히 문두에 나타난 ‘한정성’(또는 ‘충칭성’)을 띤 명사구이다. 즉 ‘그가 읽어본 적이 있다’는 진술의 대상은 ‘이 책’이고, ‘내가 싫어한다’는 진술의 대상은 ‘小張’이다.

그러나 (23)~(25)와 같이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이 주제로 쓰인 문장에서는 평언절의 진술 대상이 바로 이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4)에서 ‘너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진술의 대상이 바로 ‘강당 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25)에서도 ‘내가 3시에 사무실에서 너를 기다릴게’라는 진술의 대상이 바로 ‘내일 오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밖에도 물론 ‘한정성’(또는 ‘충칭성’)의 논의 역시 이러한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주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이 주제로 쓰일 때, 평언 절의 진술 대상이 바로 그 사-공간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주제는 단지 평언 부분의 진술에 대하여 시간, 공간적인 틀(영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 또는 주제의 기능을 ‘대하여성’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대하여성’(aboutness)은 ‘주제’의 기능을 정의한 다기보다 ‘평언’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하여성’은 ‘평언’이 주제에 ‘대하여’ 된가를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대하여성’은 ‘평언’에 관한 설명일 뿐 ‘주제’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대하여성’은 이론적으로도 주제, 또는 주제의 기능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고 볼 수 없다.⁸⁾

8) Haiman(1978)은 조건절도 주제로 볼 수 있다(‘Conditionals are topics’)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언어의 예를 통해 그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왔다. 그가 제시한 영어의 조건절을 몇 개 살펴보자.

- a. If Max comes, we'll play poker.
- b. If Max had come, we'd have played poker.
- c. If ics is left in the sun, it melts.
- d. If you're so smart, why aren't you rich?
- e. If you'er so smart, fix it yourself.

위 예문에서 if 절이 각 문장의 주제로 쓰인다는 것이 Haiman의 주장이며, 이후 학자들도 대체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로 쓰이는 조건절 역시 ‘대하여성’과 ‘한정성’, ‘충칭성’ 등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오히려 if 절이 주절의 서술에 대해 상황 상의 틀(영역)을 설정(제한)한다고 한다면 보다 자연스런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b에서 ‘우리가 포커를 했을 것이다’라는 서술은 ‘만약 Max가 왔다면’이라는 상황적인 틀(영역)

Ⅲ. 중국어 주제의 기능

1. '서술의 영역 제한'

Chafe(1976)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제의 특성인 '대하여성'으로는 주제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으며, '대하여성'의 기능은 오히려 주어에 더 잘 부합된다고 보았다. 그는 주제의 기능은 주요 서술의 적용가능성을 어떤 제한된 영역 내로 한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주제는 주요 술어가 유지되는 공간적, 시간적, 개체적 틀을 설정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술의 영역 제한' 기능이 중국어의 주제를 보다 잘 설명해준다고 본다.

- (16) 一個警察抓住了一個小偷。
어느 경찰이 도둑 한 명을 붙잡았다.
(17) 一個小夥子爬上了山頂。
한 젊은이가 산 정상에 올랐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주제의 기능을 '대하여성'으로 본다면, 위의 예문에서 주어를 주제로 잘못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주제의 기능을 '서술의 영역 제한'이나 '시공간적, 개체적 틀의 설정'으로 볼 경우, 위 문장은 주제가 없는 문장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비초점화'

그런데 徐劉(2007)의 다음 예들은 Chafe(1976)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26a)와 (27a), (26b)와 (27b)는 어순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달

역) 내에서 서술된 것이다. 또 e에서 '네가 직접 고쳐라'라는 명령은 '만약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이라는 상황적 틀 내에서 발화된 것이다. 다음 절에게 계속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조건절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격의 주제에 대해 그 기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주제는 이어지는 진술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개체적 또는 상황적 영역(틀)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고 있다.

- (26) a. 花園裏, 許多老人打太極拳。
 화원에서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다.
 b. 晚上十點鐘, 電影結束了。
 밤 10시에 영화가 끝났다.
- (27) a. 許多老人在花園裏打太極拳。
 많은 노인들이 화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다.
 b. 電影在晚上十點鐘結束了。
 영화는 밤 10시에 끝났다.

(26)의 두 문장은 주제 구문으로 ‘사-공간적 틀’이 서술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27) 역시 동일하게 ‘사-공간적 틀’이 서술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제 구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본고에서는 (27)과 같은 예문을 주제의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기능에 ‘비초점화’를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비초점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국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초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 (28) a. 他三十年來一直住在蕪湖。(蕪湖)
 그는 30년 간 계속 蕪湖에서 살았다.
 b. 他在蕪湖一直住了三十年。(三十年)
 그는 蕪湖에서 30년 살았다.
- (29) a. 經濟在緩慢地增長。(增長)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b. 經濟增長得緩慢。(緩慢)
 경제가 느리게 성장한다.”

徐劉(2007)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초점은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28)a에서는 문미에 있는 ‘蕪湖’가 초점이지만,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28)b에서는 ‘蕪湖’가 더 이상 자연초점이 아니다. 반면 (28)b에서는 문미에 있는 ‘三十年’이 초점이지만 (28)a에서는 ‘三十年’이 문미에 있지 않으므로 초점성이 약화되어 더 이상 자연초점이 아니다. 즉 문미에 있으면 자연초점으로 기능하고 문미

에서 멀어질수록(즉 문두 쪽에 가까울수록) 초점성을 점차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¹⁰⁾

마찬가지로 (27)에서도 ‘花園裏’와 ‘晚上十點鐘’이 문두에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초점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6)에서는 이들이 문두로 전치되면서 초점성을 잃고 주제성이 강해져 해당 문장에서 주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래와 같이 평언(comment) 내의 동사와 논항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주제도 있을 수 있다. (30), (31)에서는 주제로 쓰인 성분이 평언 내에 있을 수 있는 기저 위치를 상정하기 어렵다.

- (30) 那場火, 幸虧消防隊來得快。
그 화재는 다행히 소방대가 일찍 왔다.
- (31) 水果, 我最喜歡蘋果。
과일 중에서 나는 사과가 제일 좋다.

위와 같은 주제 구문을 발화할 때, 화자는 담화 상에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여 문두에 배치함으로써 이어지는 평언에 대한 서술의 틀을 설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평언 내의 동사와 논항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주제의 설정 역시 화자가 그것을 ‘비초점화한’ 것으로 본다. 어떤 대상을 문두에 주제로 내세워 서술의 틀로서 설정하면, 이어지는 평언에서는 그 틀 내에서 어떤 명제를 제시하게 된다. 이때 서술의 초점은 평언의 명제 내에 존재하게 되며, 문두에서 서술의 틀로 쓰이는 주제는 초점성을 잃기 때문이다.

평언 내에 논항 관계가 있는 주제 역시 ‘비초점화된 틀’로 볼 수 있다.¹¹⁾ 평언

- 9) 초점이 일반적으로 문미 쪽에 위치하는 것은 중국어만의 특성이 아니라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Bolinger(1952)는 다른 조건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문장은 문두에서 문미 쪽으로 갈수록 문장 성분이 가진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본다.(沈家煊, 1999)
- 10) 본고에서는 ‘把+명사구’나 ‘連...都’처럼 특정 표지가 어떤 성분을 이끌고 함께 전치되는 경우에는 주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정 표지와 함께 전치될 때는 특별한 문법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제에 관한 논의에서는 아무런 표지 없이 전치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 11) (26)에서의 주제는 문장의 시공간적 틀을 나타내는데, 이들 역시 평언 절 내에서 필수 논항은 아니지만 수의적인 논항으로 볼 수 있다.

내에 논항 관계가 있는 경우에 주제는 평언 내에 있을 수 있는 기저 위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주제는 바로 이 기저 위치로부터 전치된 것으로 보아 비초점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언 내에서의 기저 위치를 주어로 볼 수 있는 주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 (32) a. 小張啊, 他不來了。
 b. 小張啊, [] 不來了。
 c. [], 他不來了。
 d. [], [] 不來了。

徐劉(2007)는 중국어 문장을 주제와 주어가 모두 있는 문장, 주제나 주어 하나만 있는 문장, 주어와 주제 모두 없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고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위의 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제나 주어 하나만 있는 문장이다. (32)의 b와 c를 비교해 보면, 종전에 주어로만 보았던 것도 그 뒤에 휴지를 둘 수 있거나 어기사를 부가할 수 있으면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저 구조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성분도 IP의 밖으로 전치하여 '서술의 틀'로 쓰이게 되면 그 초점성을 잃고 주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평언 내의 기저 위치를 동사 뒤의 목적어로 볼 수 있는 주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목적어가 비초점화되어 평언 서술의 틀을 이루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33) 烈性酒, 我從來不喝。
 독한 술은 나는 여지껏 마셔본 적이 없다.
 (34) 我烈性酒從來不喝。
 나는 독한 술을 여지껏 마셔본 적이 없다.

徐劉(2007)는 (33), (34)에 나타난 주제를 각각 '主話題'(외부 주제)와 '次話題'(내부 주제)로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의 차이를 '비초점화'의 정도 차이로 본다. (33), (34)에서 '烈性酒'가 기저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모두 동사의 뒤이다. 그런데 이것이 비초점화되어 서술의 틀을 형성하여 주제가 될 때, (33)에서

는 절(IP)의 외부로 전치되고 (34)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로 전치된 것이다. ‘비초점화’의 강도 면에서 볼 때 (33)의 ‘烈性酒’는 명제(평언) 전체의 틀을 이루므로 비초점화의 정도가 강하여 주제성이 강하다. (34)의 ‘烈性酒’는 명제 전체의 틀을 이루지는 못하며, 대신에 술어 부분만의 틀을 이루므로 비초점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제성도 다소 약하다.

(33)과 같이 목적어가 절 외부로 전치되어 비초점화의 정도가 강하면, 그 초점성을 잃고 강한 주제성을 갖게 되어 주제로 기능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34)와 같이 목적어가 주어와 동사 사이로 전치되어 비초점화의 정도가 약하면, 그 초점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게 되어 주제로 기능하는데 의미적인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陳平(2004)이 관찰한 예를 통해 내부 주제의 의미적인 제약을 살펴보자.

- (35) 問: 抽烟嗎?
담배 피워요?
答1: ?/* 我烟不抽。
난 담배 안 피워요.
答2: 我烟不抽, 酒可以喝兩杯。
난 담배는 안 피우는데, 술은 몇 잔 마실 수 있어요.
答3: 烟我不抽。
담배는 나 안 피워요.
- (36) 問: 這套房子呢?
이 집은?
答1: ? 我這套房子不怎麼喜歡。
난 이 집이 별로 맘에 안 들어.
答2: 我這套房子不怎麼喜歡, 那套250平米的倒想再看一看。
난 이 집 별로 맘에 안 들어, 저 250제곱미터짜리는 다시 보고 싶다.
答3: 這套房子我不怎麼喜歡。
이 집은 내가 별로 맘에 안 들어.

(35), (36)에서 答3에는 외부 주제가 있는데 반해, 答1과 答2에는 내부 주제가 있다. 이 중 외부 주제가 있는 문장은 단독으로 쓰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내부 주제가 있는 문장은 단독으로는 쓰이기 어렵고, 대조의 의미가 있어야만

보다 자연스럽다.

이러한 차이는 외부 주제와 내부 주제의 비초점화의 정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즉 외부 주제는 문두, 즉 절 외부에 위치하여 비초점화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므로, 초점성을 잃고 주제성이 강화된 보다 더 전형적인 주제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내부 주제는 주어 뒤 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비초점화의 정도가 약하고, 따라서 초점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徐劉(2007)에 따르면 초점성은 대조의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35), (36)에서 초점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은 내부 주제가 있는 문장(答1, 答2)은 대조의 의미로 쓰일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우며 단독으로 쓰이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비초점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陳平(1994)의 연구 역시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는 아래에 예로 든 [NP1+NP2+VP]의 구문에서 주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떤 명사구가 우선 순위를 갖는지는 의미역 위계가 관련된다고 보았다.¹²⁾

- | | | |
|---------|-------------|-------------|
| (37) a. | 這事老高有辦法。 | [系事+施事+VP] |
| b. | *老高這事有辦法。 | *[施事+系事+VP] |
| (38) a. | 熱水我洗碗了。 | [工具+施事+VP] |
| b. | *我熱水洗碗了。 | *[施事+工具+VP] |
| (39) a. | 這種式樣小李很喜歡。 | [對象+感事+VP] |
| b. | *小李這種式樣很喜歡。 | *[感事+對象+VP] |
| (40) a. | 交通問題我們解決。 | [受事+施事+VP] |
| b. | *我們解決交通問題。 | *[受事+施事+VP] |

위의 [NP1+NP2+VP]의 구문에서 NP1과 NP2의 의미역을 비교해 보면, NP1에는 상대적으로 受事성이 강한 명사구가, NP2에는 상대적으로 施事성이 강한 명사구가 올 때 보다 좋은 문장으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해 陳平(1994)은 [受事+施事+VP] 구문은 무표적인 것으로, [施事+受事+VP] 구문은 특수한 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¹³⁾

12) 陳平(1994)은 주제와 주어, 목적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의 논의를 간략화하여 주제와 주어만을 비교하였다.

13) [受事+施事+VP] 구문과 [施事+受事+VP] 구문에서 '施事'와 '受事'는 각각 NP1과 NP2의 의미역 중 상대적으로 '施事성이 강한 것'과 '受事성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즉

본고는 이상에서 살펴본 陳平의 관찰이 결국 ‘외부 주제’와 ‘내부 주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受事+施事+VP] 구문은 초점성이 강한 受事が 절 밖으로(즉 주어의 앞으로) 전치되면서 초점성을 잃게 된(강하게 비초점화된) ‘외부 주제’에 해당되고, [施事+受事+VP] 구문은 초점성이 강한 受事が 문장 내, 즉 주어와 동사 사이로 전치되면서 약하게 비초점화된 ‘내부 주제’에 해당된다. 절의 외부로 전치된 ‘외부 주제’는 초점성을 잃고 강한 주제성을 띠게 되어 문장이 성립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지만, ‘내부 주제’는 약하게 비초점화되어 약한 주제성과 약한 초점성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문장이 성립하려면 의미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方梅(1995)도 [NP1+NP2+VP] 구문에서 일반적으로 NP2의 施事性이 NP1보다 강해야 하고, 반대로 NP1의 受事性은 NP2보다 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의미역 위계를 따르면 일반적인 주제 구문이 되고, 이를 위배하게 되면 대조의 의미를 함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方梅의 주장 역시 외부 주제가 있는 문장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나 내부 주제가 있는 문장은 ‘내부 주제’에 남아있는 초점성으로 인해 ‘대조 의미’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한다는 본고의 주장에 부합한다.¹⁴⁾ 다음은 方梅(1995)의 예이다.

(37a)~(40a)는 [受事+施事+VP] 구문으로, (37b)~(40b)는 [施事+受事+VP]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4) 한 익명의 심사자는 ‘내부 주제’ 뿐 아니라 ‘외부 주제’도 흔히 대조의 의미를 보이는데, 이러한 ‘외부 주제’의 대조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내부 주제’가 갖는 대조 의미는 보다 의미론적인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상하 문맥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것인데 반해, ‘외부 주제’가 갖는 대조 의미는 보다 화용론적인 것이어서 문맥에 따라 임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i) 那棵樹花小, 葉子大, 很難看, 所以我沒買。

(ii) 那棵樹, 葉子大: 這棵樹, 叶子小。

위 두 문장은 모두 ‘외부 주제’를 내포한다. 그 중 (i)의 발화에서 화자는 문두에 ‘외부 주제’ ‘那棵樹’를 배치함으로써 뒤에 이어질 명제들의 서술에 대한 틀(제한된 영역)로서 제시한다. 반면 (ii)의 발화에서 화자는 ‘那棵樹’와 ‘這棵樹’라는 두 개의 외부 주제를 배치하여 두 영역 간의 비교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는 한편으로 하나의 ‘외부 주제’를 제시하고 이 제한된 영역(틀) 내에서 명제들을 이어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개 이상의 ‘외부 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대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택은 단지 화자에 의해 임시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이와 달리 ‘내부 주제’는 지금까지 여러 예문을 통해 관찰하였듯이 특정 문맥 없이도

- (41) a. 飯館裡咱們不好說話。 [地點+施事+VP]
 식당에서는 우리가 말하기 불편해요.
 b. *咱們飯館里不好說話。 *[施事+地點+VP]
 우리가 식당에서는 말하기 불편해요.
 c. 咱們飯館里不好說話, (得換個清淨地方).
 우리가 식당에서는 말하기 불편해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 (42) a. 短款衣服我媽不喜歡。 [對象+感事+VP]
 짧은 옷은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해요.
 b. *我媽短款衣服不喜歡。 *[感事+對象+VP]
 우리 엄마가 짧은 옷은 안 좋아해요.
 c. 我媽短款衣服不喜歡, (長款的還能接受).
 우리 엄마가 짧은 옷은 안 좋아해요. (긴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NP1+NP2+VP] 구문에서 NP1과 NP2의 의미역 위
 계 문제를 다룬 陳平(1994), 方梅(1995) 등의 연구는 본고의 ‘외부 주제’와 ‘내부
 주제’의 차이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들의 차이는 受事性이 강한 명사구가 비초
 점화될 때,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비초점화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술어 부분 역시 원래의 위치보다 문두 쪽에 배치하여 비초점화되면
 주제로 기능하게 된다.

- (9) 他人不像人, 鬼不像鬼。
 그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귀신 같지도 않다.
 (10) 他主任倒也是主任, 但是這一攤子的工作不歸他管。
 그는 주임은 주임이지만, 이 산적한 일들은 그의 소관이 아니다.
 (11) 他兒子聰明倒挺聰明, 就是寫作業太粗心。
 그의 아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다만 숙제하는 게 너무 건성이다.
 (12) 小張打籃球打得非常好。
 장군은 농구를 아주 잘 한다.

‘대조의 의미가 없으면 어색하거나 비문으로 간주되므로, ‘내부 주제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보다 더 의미론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것은 徐劉(2007)가 ‘복사식 주제’로 명명한 것이다. 복사식 주제는 위와 같이 술어 부분, 또는 술어 부분 중 일부를 복사하여 주제로 삼은 것으로, 이러한 복사 주제는 문두에 올 수도 있고, (9)~(12)처럼 주어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9)에서 내부 주제로 쓰인 ‘人’과 ‘鬼’는 각각 ‘不像人’과 ‘不像鬼’라는 서술의 틀을 이룬다. 따라서 (9)의 의미는 ‘그는 사람이라는 속성 면에서 볼 때 사람 같지 않고, 귀신이라는 속성 면에서 볼 때 귀신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화자는 이전 담화에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여 절 외부(주어의 왼쪽)에 배치함으로써 평언 전체에 대해 비초점화된 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술어 부분에 대해 비초점화된 서술의 틀을 설정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초점화된 서술의 영역(틀) 설정’이 바로 중국어 주제의 기능이라고 본다.

주제의 기능을 비초점화된 서술의 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주제가 명사성 성분일 때 그 주제는 흔히 한정적(definite), 총칭적(generic)이라는 사실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주제가 평언의 서술이 적용되는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그 설정되는 영역은 그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徐劉(2007)에 따르면 한정 명사구는 직접적으로 확정적인 대상을 나타내며, 총칭 명사구는 청자가 확정할 수 있는 부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명확한 영역을 나타내므로 주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제가 명사성 성분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한정성, 총칭성의 논의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형용사(구), 동사(구), 절 등이 주제로 쓰이는 경우에도 그 주제는 평언 절에 대한 서술의 틀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정성, 총칭성 등의 논의 없이도 명사구가 주제로 쓰인 경우와 동일하게 주제 구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주제+평언’(topic+comment)으로 이루어진 주제 구문에서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으로 알려져 왔으며, 따라서 주제와 평언의 관계는 ‘대하여성’(aboutness)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하여성’ 만으로는 중국어 주제의 여러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문장(평언)의 서술이 적용되는 영역(틀)의 설정’과 ‘비초점화’를 중국어 주제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국어 주제는 평언 절의 외부(주어의 앞) 또는 절 내부에서 주어 뒤에 분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의미 차이는 비초점화의 강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NP1+NP2+VP] 구문에서 NP1은 상대적으로 수사성이 강하고 NP2는 상대적으로 시사성이 강할 때 무표적인 문장으로 여겨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조의 함의를 갖는 특수한 문장으로 여겨지는데, 이 또한 ‘외부 주제’와 ‘내부 주제’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參考文獻】

- 이창호(1996), 《현대한어 주제에 관한 담화 화용론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方 梅(1995), 〈漢語對比焦點的句法表現手段〉, 《中國語文》, 4.
 徐烈炯·劉丹青(2007), 《話題的結構與功能》, 上海教育出版社.
 石定栩(1999) 〈主題句研究〉, 《共性与个性: 漢語語言學中的爭議》, 徐烈炯主編,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沈家煊(1999),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曹逢甫(1994), 〈再論話題和“連…都/也”結構〉, 《功能主義與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陳 平(1994), 〈試論漢語中三種句子成分與語義成分的配位原則〉, 《中國語文》 3.
 陳 平(2004), 〈漢語雙項名詞句與話題-陳述結構〉, 《中國語文》 6.
 Chafe, W.(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ed. by Charles N. Li, Academic Press.
 Daneš, F.(1994), “Prague School functionalism as a precursor of text linguistics”. 《Cahiers de l’ILSL》, 5, 117-126.
 Haiman, J.(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
 Hickey, T(1990), The acquisition of Irish: a study of word order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Hsu, Y. Y.(2008), “The sentence-internal topic and focus in Chinese”, In

20th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Li, Charls N., and Sandra A.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ed. by Charles N. Li, Academic Press.

Li, Charls N., and Sandra A.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ul, W.(2002), "Sentence-internal topics in Mandarin Chinese: the case of object preposing", 《Language and Linguistics》, 3(4).

【中文提要】

學者們一般認為，在由‘話題和陳述’(topic + comment)構成的話題結構中，話題是句子所陳述的對象，因此話題與陳述之間的關係可以概括為相關性(aboutness)。可是本文認為，相關性不能很好地解釋一些有關漢語話題的現象。根據Chafe(1976)的研究，本文也規定漢語話題的功能為：① 為句子或者句子的述謂定出空間性、時間性或個別性的框架 ② 非焦點化。漢語話題可以出現在‘陳述’小節的外邊或者主語後動詞前。這外部話題和內部話題的差異可以用非焦點化的強弱不同來說明。在[NP1 + NP2 + VP]結構中，NP1的受事性較強，NP2的施事性較強時，一般被看做常規句，相反可被看做特殊句。這也可以通過‘外部話題’和‘內部話題’的非焦點化的強弱不同來說明。

【主題語】

外部話題，內部話題，非焦點化，施事，受事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